



몰질하는 해너들 꽃샘추위가 이어진 10일 제주시 도두동 사수마을 앞 바다에서 해너들이 몰질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공항 H빔 구조물 항공기 충돌시 피해 키워”

감사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감사 결과 발표 ICAO 기준과 달리 부서지지 않는 H빔 설치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해 179명이 숨진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제주공항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의 기둥 격인 H빔 철골구조물은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설계돼 오히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게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공항 로컬라이저는 길이 42m로 지난 1986년 최초 설치됐으며 이 시설을 받치고 있는 H빔 철골구조물은 길이 47m에 높이는 7m에 이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상 로컬라이저처럼 항공기 지상 이동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는 구조물은 쉽게 깨질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공항에 설치된 H빔 철골구조물은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

고 충격으로 구조물이 항공기가 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와 승객에게 큰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빔은 항공기와 충돌하면 오히려 기체를 덮쳐 사고 피해를 키운다는 뜻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 중단안전구역(중단구역)도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ICAO 기준대로 활주로의 착륙대 사이 정지(이륙 포기)시 항공기가 정지하는(구역)을 반영하는 시설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별 경우 정작 중단구역

권고 기준을 못 지키는 사실을 알게되자 제주공항을 비롯한 6개 공항에 적용하려던 정지료를 시설 기준에서 제외했다.

ICAO 기준대로라면 활주로 끝단에서 60~120m 지점까지 정지로

를, 또 정지로 끝단에서 60m 이후 지점까지는 착륙대를, 착륙대 끝단에서 240m 지점까지는 중단구역을 각각 설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중단구역을 추가 확보하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정지료를 삭제해 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ICAO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공항에 주로 활용되는 동서 활주로 중단구역은 180m로 축소돼 권고 기준보다 60m가 모자라고, 보조로 쓰는 남북활주로의 중단구역

은 22m까지 축소돼 최소 안전 기준인 90m에도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공항 측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현재 운용 중인 로컬라이저 시설을 철거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9일 하루에만 전동·전정가위 사고 6건

제주에서 감귤나무 전정 시기를 맞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접수된 전정 작업 안전사고는 총 6건이다.

9일 오전 8시 48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70대 여성이 전동가위에 의해 왼쪽 엄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3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오전 11시 59분쯤 제주시 도련2

동, 오후 2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도 각각 70대 남성이 전정 작업 중 왼쪽 엄지 손가락이 절단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전정 작업 중 60대 남성이 전정가위에 의해 손바닥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4시 31분쯤 서귀포시 상례동에서도 전정가위에 의해 80대 여성이 왼쪽 엄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양유리기자

서귀포 단독주택서 불... 1시간만에 진화

서귀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과 한 국전력 제주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

청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은 신고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9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연이자 최대 3만%...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402명 대상 872회 불법 대출로 2억여 원 이득

10명 검거... 총책·추심책·모집책 등 3명 구속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6500%에 달하는 연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총책 30대 A씨와 추심책 30대 B씨, 모집책 20대 C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교황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 피해자 402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피해 제주도민은 2명이다.

조직은 온라인에 ‘무(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사람들을 모집,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훌쩍 넘는 연 41~3만6500%의 이자

를 적용해 약 2억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출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진,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셜 미디어에 얼굴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총 17회에 걸쳐 400만 원을 빌렸지만 조직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총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리고 6~7일 뒤 18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막대한 이자율이 적용됐다.

조직 일당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지난 2월 이들 일당 10명을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양유리기자

“제주 학생·교직원 성(性)인식은?”

도교육청, 학생·교직원 대상 첫 실태조사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생, 교직원 등의 ‘성(性)인식’을 올해 처음 조사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 성인식 실태조사’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조사 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3

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2~3학년)과 교직원(지난해 중·고교 근무자), 특수학교 교직원이다. 도내 78개 학교(중학교 45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3곳)에서 총 3만 명(학생 2만 6400명, 교직원 5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사실상 전수조사 성격을 띤다.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생,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교육공동체의 성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도 도내 연구 기관이 청소년의 성인식을 조사했던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교육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따랐다.

조사 문항은 크게 학교 내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예방 교육 경험, 법과 제도 인지 여부 등

이다. 조사 결과는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초·중·고교 교직원, 교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올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감귤 신제품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일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천혜향, 카라향, 황금향, 한라봉, 궁천, 유라조생, 오히라베니와세, 금귤, 하갈(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하례조생, 미니향, 탐나는봉, 미니몬, 제라몬

※ 포드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갈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